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13. Vol. 24. No. 1. pp. 157~18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조 혜 정*

초 록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 및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층 실업률 증가는 대학생들에게 취업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행복감을 위협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행복감 저해를 완충시키고 대학생들이 당면한 과제를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1학년부터 4학년 대학생 7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취업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 행복감, 조절효과

* 신경대학교, 교신저자, visionaryhj@naver.com

Ⅰ. 서 론

높은 교육수준이 취업을 담보하지 않은 현 시대에서 국내 저성장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여건의 악화는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둔화로 인해 구조조정과 함께 고용을 줄일 계획을 내놓으면서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경제, 2012.11.05). 통계청(2012)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데일리중앙, 2012.08.16 재인용). 또한 취업준비생들과 부모들이 감당해야할 한 해 평균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학 415만원, 사립대학 73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학비로 인한 부담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40만명을 넘어 약 15%(대학알리미, 2012)에 다다르는 등 취업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환경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은 생애 첫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대학생에게 취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과도한 경쟁과 함께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 중 취업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김영상, 2003), 취업을 앞둔 3, 4학년 학생만이 아니라 신입생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과 취업에 대한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김경욱, 조윤희, 2011).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 우울 및 불안(김민정, 조긍호, 2009), 자살사고(윤명숙, 이효선, 2012)가 증가하는 반면에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 또는 행복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범준, 2011; 서경현, 2011). 특히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여 안정된 삶 또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를 주목하고자 한다.

스트레서가 동일하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내·외적 자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강경훈, 2010), 자기효능감(김경욱, 조윤희, 2011), 문제 또는 정서대처방식(서경현, 2011; Lazarus, 1993), 인지적 조절전략(심지은, 안하얀, 김지혜, 2011) 등과 같은 개인 내적자원에 따라 스트레스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충시킨다는 점이다. Cohen과 MaKay(1984)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건강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면서 스트레스 완충가설에 대해 주장하였다. 관련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완화(Cohen & Hoberman, 1983)시키거나 효과적인 대처수단으로 작용(Thoits, 1986)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재선, 김의철, 2006; 안지영, 2007; 허승연, 2009; Gallagher & Vella-Brodrick, 2008). 이를 종합해볼 때 사회적 지지는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완충시키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 취업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 지에 대해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자살생각과 같은 부적 정서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안녕감 또는 행복감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특히 취업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개인의 내적 자원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의 외적자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인간은 발달단계마다 다양한 과업을 요구받고 있으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 자원만큼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자원은 심리적 갈등을 완충시키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앞으로 어떠한 사회적 자원을 확충해 나가야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수간의 관계를 명확히 살펴보고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이현주, 오윤자, 2011; Thompson & Heller, 1990), 연령 또는 교육수준(최말옥, 2011; Wilson, 1967), 주관적인 건강상태(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주관적인 경제수준(김민정, 조긍호, 2009)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변인 간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충하고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삶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위기 상황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신체적 및 심리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각 발달시기별로 위기를 직면하고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발달상의 위기를 잘 극복했을 경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반면에 개인의 심리적 압박 및 장애물로 작용한다면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행복감을 저해할 수 있다.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은 경제적 독립과 관련한 주요한 과제이지만 과도한 취업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삶의 전환기의 디스트레스(distress)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생활스트레스 중 취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상, 2003). 취업스트레스는 취업 직전의 4학년 학생만이 아니라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대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경욱과 조윤희(2011)의 연구에서 진로의 모호성, 취업압박 등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높은 실업률은 진로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로장벽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대학생들은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경, 이현림, 2008). 4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구직효능감 또는 자존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수준이 낮고 구직스트레스에 대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현균, 장재윤, 2003; 장재윤 외, 2004a).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인지전략인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기 등이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인지전략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더욱 우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은 외, 2011). 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윤명숙과 이효선(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우울 및 불안, 사회부적응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조긍호, 2009; 장재윤 외, 2004b).

2.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

행복은 시대와 문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학자 또는 학문영역에 따라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행복이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인 경험에서 온다는 점을 주목한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복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쾌락주의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으며(김금미, 2010), Diener(1984)는 행복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정적 정서를 더 경험하고, 부적 정서는 덜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은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사건 또는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즐거운 일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불행한 일을 경험하면서 슬픔과 괴로움 또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인간은 환경 속에 존재하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 발달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생활사건이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 각 발달시기에 따라 경험하는 외부적 사건이 다르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먼 과거에 발생한 사건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사건들이 삶의 만족 혹은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Suh, Diener & Fujita, 1996)에서 연구대상자의 발달시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사건 중 어느 것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까?. 최근 김범준(2011)은 대학생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 및 불행관련 사건을 조사하였는데, 행복관련 사건으로는 '가족 및 친구 등 관계중심적 사건'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행관련 사건으로는 '취업에 대해 걱정'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Coffman & Gilligan, 2002) 또는 주관적 안녕감(서경현, 2011)이 낮았다. 이외에도 취업과 관련된 요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대학생들이 취업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영역별 목표는 더 충족되고 목표를 이룰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현숙, 2008). 대학생들의 행복요인에 대해 연구한 김금미(2010)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진로의 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에게 있어 취업준비과정이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생애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취업스트레스, 사회적지지, 행복감간의 관계

취업스트레스는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내적 또는 외적 대처자원에 따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수용, 자기효능감, 문제대처방식 등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 주목한 연구들도 있지만(강경훈, 2010; 김경욱, 조윤희, 2011; 김금미, 2010; 서경현, 2011; 심지은 외, 2011; Karademas, 2006; Lazarus, 1993), 사회적 지지 또는 긍정적 대인관계는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외적자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의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크게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가 포함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수준(Gallagher & Vella-Brodrick, 2008; Karademas, 2006)이 높을수록 또는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구재선, 김의철, 2006)할수록 더 행복감을 느끼며, 부모의 지지(안지영, 2007) 및 친구의 지지(허승연, 2009)는 주관적 및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한 김민경(2011)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부모나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 의미있는 소통을 할 때 행복하다고 인식하였다. 서하진과 김정옥(200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가족구성원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존중 및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서로 가깝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을 때 행복감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물질적인 도움이나 사회적 지원이 제공받기도 하며, 중요한 타자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Argyle & Martin, 1991).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낮다면 오히려 개인의 행복감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실제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나 중요한 타자와의 갈등을 경험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욱, 조윤희, 2011). 주변사람들이 자신에게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한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인식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정희, 장유진, 2011). 또한 대학생들이 가정불화, 외로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를 가장 불행한 순간으로 받아들였다(한기혜, 박영신, 김의철, 2008). 가족, 친구 이외에도 사회적 자원으로부터의 지지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자원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취업에 대한 정보 지원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취업준비정도가 높았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석, 이영선, 하정철, 2011).

그렇다면, 사회적 지지는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간의 관계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스트레스 완충가설에 따르면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감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반면에 사회적 지지체계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 영향이 줄어든다고 가정한다(Cohen & MaKay, 1984). Cohen과 Hoberman(1983)의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사건이 많을수록 우울증상 및 신체화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사회적 지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Henderson(1984)은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대한 스트레서의 효과를 완충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서에 대한 지각을 바꾸고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어줄 수 있는 대처수단으로 작용하였다(Thoits, 1986).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대처자원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를 완충하는 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행복감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먼저, 행복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 성별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으나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Thompson과 Heller(1990)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으며, 이현주와 오윤자(2011)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ameron(1995)은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경험하지만 긍정적 정서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행복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성인 남녀의 행복에 대해 살펴본 연구(최말옥,

2011)에서도 행복감에 있어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이외에도 Wilson(1967)은 좀 더 젊고 건강하고, 교육수준 및 소득이 높고 결혼한 사람일수록 행복하다고 보았다(Diener et al., 1999). 이를 재검증한 Diener 등(1999)은 객관적인 건강상태 및 실제 소득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행복과 연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민정과 조긍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이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iener와 Suh(1997)의 연구에서는 40개 국가의 60,000명의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적 정서만 감소할 뿐 삶의 만족 및 부적 정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가시적이거나 측정 가능한 또는 객관적인 요인들로만 주관적 안녕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내적이고 심리학적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녀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에서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월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적인 요인들을 추가한 다음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말옥, 2011). 그렇다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행복과 무관한 것일까?. 기존 연구결과만으로 행복감이 개인의 특성 및 환경과 무관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행복감간의 관계를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어왔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통제한다면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요인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주관적인 경제수준 및 건강상태를 통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주요 변수간의 영향력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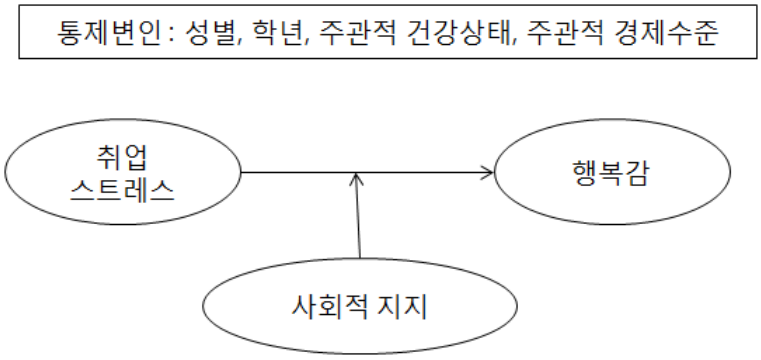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 지역의 4년제 4개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3주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상 스스로 설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 기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900부를 배포하고 800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답변이 불성실한 62부를 제거하고 총 73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취업스트레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황성원(1998)이 코넬대학의 Shepherd 등(1966)의 '스트레스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CMI)'을 근거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척도(72문항, 3점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강유리(2006)가 요인분석을 통해 21문항(5점 척도)로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유리(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취업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는 성격스트레스(6문항), 가족환경스트레스(5문항), 학업스트레스(3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4문항), 취업불안스트레스(3문항)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져있다. 총 취업스트레스의 신뢰도는 .703, 성격스트레스는 .860, 가족환경스트레스는 .745, 학업스트레스는 .749, 학교환경스트레스는 .738, 취업불안스트레스는 .703으로 모두 .70이상의 높은 신뢰도는 보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지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황윤경(1996)이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표준화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25문항으로 모두 Likert척도(5점)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정보적 지지(7문항), 정서적 지지(6문항), 물질적 지지(6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는 .967, 정서적 지지는 .903, 정보적 지지는 .893, 평가적 지지는 .893, 물질적 지지는 .849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3) 행복감

행복감 척도는 Lawton(1975)이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으로 P.G.C. 사기 척도(Philadelp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를 김영우(1998)가 번안하여 사용한 수정

판 척도를 이지연(2005)이 대학생에 맞게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문항 5개, 부정문항 12개 총 17개 문항이며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항목을 택하면 1점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항목을 택하면 0점을 부여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들은 역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행복감을 정적 정서(5문항), 부적 정서1(6문항), 부적 정서2(3문항), 부적 정서3(3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총 행복감의 신뢰도는 .765, 정적 정서(행복감1)의 신뢰도는 .622, 부적 정서1(행복감2)는 .594, 부적 정서2(행복감3)은 .636, 부적 정서3(행복감4)는 .591로 나타났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 Windows와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료의 정규성 또는 이상치를 검토하였다. 둘째, 신뢰도분석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행복감 변인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섯째, Ping(1996)의 two-step approach를 통해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는 전통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시행하고 왔으나, 회귀분석의 경우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회귀분석의 경우 변수의 측정오차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호작용 효과가 과소 추정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측정오차를 반영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다집단분석을 이용하기도 한다. 조절변수가 명목변수일 경우에는 집단간 추정된 계수가 유의하게 다른지를 검증하는 게 적절하지만 조절변수가 연속변수일 경우에는 분석을 위해 임의로 이분 변수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로 2종 오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MacCallum, Zhang, Preacher & Rucker, 2002). 따라서 조절변수가 연속형일 경우,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상호작용모형을 분석하는 대

안으로 Ping(1996)의 two-step approach을 이용하고 있다(홍세희,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조절변인이 연속변수이므로 Ping(1996)의 two-step approach의 방법에 따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행하였다. 첫째, 측정변수의 왜도 및 첨도를 통해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중공선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측정변수의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모형의 주효과변수(X)와 조절효과변수(Z)의 분산과 공분산, 주효과변수(X)의 지표변수와 조절효과변수(Z)의 지표변수와 오차분산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값으로 상호작용항(XZ)의 분산, 상호작용항(XZ)의 지표변수의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을 계산하였다. 넷째, 연구모형에서 계산된 값으로 상호작용항(XZ)의 분산과 상호작용항(XZ)의 지표변수의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을 고정한 후, 상호작용항(XZ)에서 종속변수(Y)에 이르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증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방법은 Ping(1996)의 two-step approach으로 홍세희(2009)에 따라 시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 448명(61.0%), 남학생 286명(39.0%)으로 설문에서 여학생이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취업스트레스는 4학년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년의 분포를 살펴보면 3학년 261명(35.6%), 2학년 179명(24.4%), 1학년 171명(23.3%), 4학년 123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사례가 88.6%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계수준은 '중'이 547명(74.5%), '하'가 153명(20.8%), '상'이 34명(4.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중 행복감은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지표변수로 묶였으며, 취업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는 기존 연구를 통해 하위요인으로 밝혀진 문항들을 지표변수로 묶어 정상성 가정을 충족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정상성 충족을 위해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왜도와 첨도를 측정한 결과 왜도는 3미만, 첨도는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들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2와 같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는 -.260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556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간의 관계는 .329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는 낮아졌으며,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절대값 0.6이상의 다중공선성을 보여주는 계수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286(39.0)	학년	1학년	171(23.3)
	여	448(61.0)		2학년	179(24.4)
주관적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지 않다	28(3.8)		3학년	261(35.6)
	건강하지 않다	56(7.6)		4학년	123(16.8)
	보통이다	225(30.7)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4(4.6)
	건강하다	276(37.6)		중	547(74.5)
	매우 건강하다	149(20.3)		하	153(20.8)

변인	*M*	*S.D*	왜도	첨도
취업스트레스	2.42	.59	-.128	-.305
성격 (스트레스1)	2.39	.80	.248	-.355
가족환경(스트레스2)	2.63	.80	-.030	-.321
학업 (스트레스3)	2.28	.79	.209	-.398
학교환경(스트레스4)	2.71	.77	-.328	-.151
취업불안(스트레스5)	1.85	.73	.777	.377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사회적지지	3.71	.62	-.210	.456
	정서적(사회적지지1)	3.81	.67	-.387	.452
	정보적(사회적지지2)	3.76	.68	-.192	.283
	평가적(사회적지지3)	3.75	.64	-.311	.589
	물질적(사회적지지4)	3.53	.66	-.029	.166
	행복감	.59	.21	-.358	-.624
	정적 정서 (행복감 1)	.61	.26	-.303	-.845
	부적 정서1(행복감 2)	.60	.31	-.400	-.886
	부적 정서2(행복감 3)	.34	.35	.662	-.776
	부적 정서3(행복감 4)	.80	.29	-1.366	.946

표 2

상관관계

번호	변수	1	2	3
1	취업스트레스	1		
2	사회적 지지	-.260**	1	
3	행복감	-.556**	.329**	1

***p <.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행복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클 수 있는 4학년과 기타 학년간의 행복감의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4학년이 기타 학년(1-3학년)에 비해 행복감이 약간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 행복감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차이

변인	구분	*N*	*Mean*	*S.D*	*F/t*
성별	남	286	.65	.20	5.612***
	여	448	.56	.21	
학년	4학년	123	.56	.20	1.801
	1-3학년	611	.59	.2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않다	28	.61	.27	19.380***
	건강하지 않다	56	.48	.23	
	보통이다	225	.54	.20	
	건강하다	276	.60	.19	
	매우 건강하다	149	.70	.20	
주관적 경제수준	상	34	.67	.20	10.805***
	중	547	.61	.21	
	하	153	.53	.21	

***p <.001

3.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는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지에 대해 평가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중 행복감 17문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관측변수로 요인이 묶여졌다. 잠재변수인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하위요인으로 분류된 요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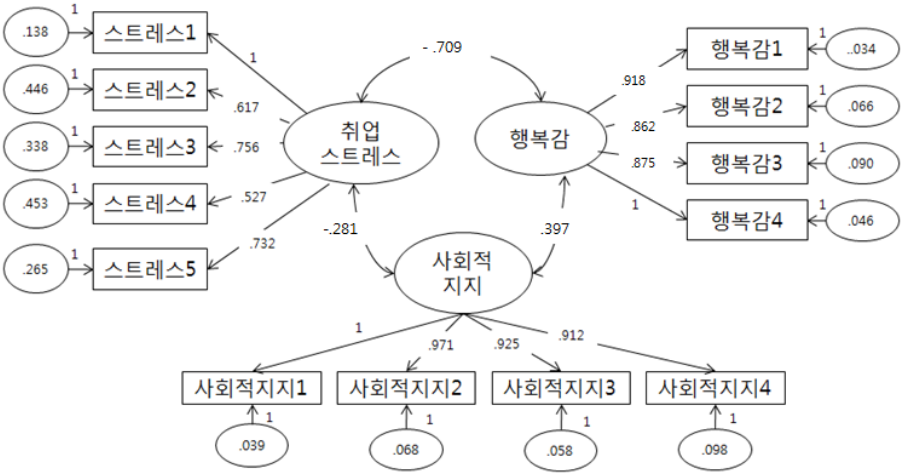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확인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유변량이 0보다 작게 도출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추정치가 있는지, 그리고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확인하였다. 행복감의 표준화계수는 .365-.719로 모두 유의하며, χ^2(df)=251.482(113), CFI=.939, TLI=.927, RMSEA=.041로 χ^2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형의 적합도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χ^2(df)=347.261(62), p =.000, CFI=.948, TLI=.935, RMSEA =.07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483 -.955로 모두 p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 사회적지지, 행복감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은 모두 타당하게 구성되었음이 검증되었다.

잠재변수들 간 공분산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는 -.281로 p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두 변수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는 -.709로 p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두 변수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간의 상관관계는 .397로 p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두 변수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β		
취업 스트레스	스트레스1	1	0.885		
	스트레스2	0.617	0.546	0.041	14.901***
	스트레스3	0.756	0.676	0.039	19.159***
	스트레스4	0.527	0.483	0.041	12.956***
	스트레스5	0.732	0.708	0.036	20.261***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1	1	0.955		
	사회적지지2	0.971	0.922	0.020	49.478***
	사회적지지3	0.925	0.926	0.018	50.352***
	사회적지지4	0.912	0,882	0.022	42.159***
행복감	행복감1	0.918	0.696	0.064	14.284***
	행복감2	0.862	0.550	0.072	12.052***
	행복감3	0.875	0.495	0.079	11.031***
	행복감4	1	0.674		

***p <.001

4. 조절효과의 검증

측정모형에서 추정된 주효과변수(X)와 조절효과변수(Z)의 분산과 공분산, 주효과변수(X)의 지표변수와 조절효과변수(Z)의 지표변수를 통해서 상호작용항(XZ)의 분산(Var(XZ)), 상호작용항(XZ) 지표변수의 요인계수 (ΓXΓZ)와 오차분산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XZ의 분산

Var(XZ) = Var(X)Var(Z) + Cov(X,Z)2

= (.498)(.410) + (-.281)2 = .282

② XZ 지표변수의 요인계수

$\Gamma X \Gamma Z$ = (1+.617+.756+.527+.732/5) (1 +.971+.925+.912+.918 /4)

= (.726) (.1.182) = .858

③ XZ 지표변수의 오차분산

$\Gamma X2 Var(X) \theta Z + \Gamma Z2 Var(Z) \theta X + \theta X \theta Z$

= (.726)2 (.498) (.138+.446+.338+.453+.265/5) + (.1.182)2 (.410) (.039+.068 +.058+.098/4) + (.039+.068+.058+.098/4) (.138+.446+.338+.453+.265/5)

= .017 + .188 + .022 = .227

이상을 통해 구해진 ①XZ의 분산은 .282로, ②XZ 지표변수의 요인계수는 .858로, ③XZ 지표변수의 오차분산은 .227로 고정한 후 그림 3과 같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적합도는 χ^2(df)= 2417.655(133), p=.000, CFI=.871, TLI=.842, RMSEA=.082로 χ^2를 제외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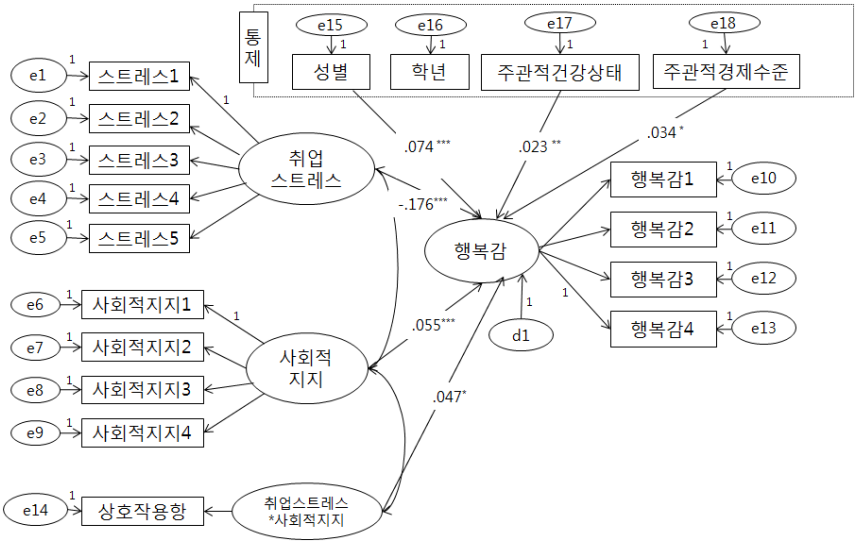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는 C.R값이 -12.194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는 C.R값이 4.757으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작용항의 경우 C.R값이 2.538으로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가 행복감에 이르는 경우가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행복감이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경 로		B	β	S.E	C.R
취업스트레스	→ 행복감	-.176	-.673	.014	-12.194***
사회적지지	→ 행복감	.055	.186	.011	4.757***
취업스트레스 × 사회적지지	→ 행복감	.047	.132	.018	2.538*
성별(남=1)	→ 행복감	.074	.191	.014	5.296***
학년(4학년=1)	→ 행복감	.035	.069	.018	1.948
주관적 건강상태	→ 행복감	.023	.123	.007	3.467**
주관적 경제수준	→ 행복감	.034	.086	.014	2.437*

*p <.05, **p <.01, ***p <.001



χ^2(df)= 2417.655(133), p=.000, CFI=.871, TLI=.842, RMSEA=.082

각 경로계수는 비표준화추정치이며, 유의미한 경로만 표시하였음.

그림 3. 구조모형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지지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았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낮은 대학생일수록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으며,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데 사회적지지가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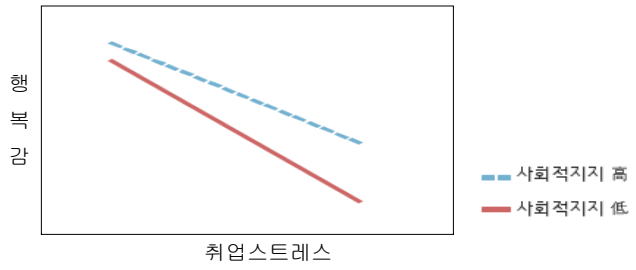


그림 4.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행복감 차이를 비교한 기술통계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 중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별(Thompson & Heller, 1990), 주관적 건강상태 및 주관적 경제수준과 행복감간의 관계(김민정, 조긍호, 2009; Diener et al., 1999)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관련 변인간의 구조관계를 살펴본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행복감에 부적(negative)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김범준, 2011; 서경현, 2011; Coffman & Gilligan, 2002)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 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지지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반면에 사회적 지지가 낮은 대학생일수록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 완충가설(Cohen & MaKay, 1984; Henderson, 1984)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구재선, 김의철, 2006; 김민경, 2011; 서하진, 김정옥, 2009; 안지영, 2007; 허승연, 2009; 한기혜 외, 2008; Gallagher & Vella-Brodrick, 2008)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는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증진을 위한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발달과정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의미한다. 대학교육의 본질이 취업 자체는 아니지만 대학입시에 밀려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없었던 대학생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진로에 대한 불안과 맞물려 취업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 이후 진로적성검사 또는 진로상담을 하거나,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관련 교육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박람회, 다양한 직종과 직종의 특징을 알려주는 매거진 또는 신문 발간 등 취업준비를 위한 정보의 장을 확대하여 취업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자살사고 등 정신건

강을 위협한다는 점(신현균, 정재윤, 2003; 심지은 외, 2011; 윤명숙, 이효선, 2012)에서 단순히 취업강좌 및 취업교육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즉 취업준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선별(screening)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상담 서비스에 연결하거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그룹(support group)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내 상담기관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위험군 선별 이후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관련기관에서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교 내에 캠페인을 통한 아웃리치활동, 취업준비 대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의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대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갈수록 취약해지는 취업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인턴제와 같이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편의적인 대책보다는 기업이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임운택, 2011)하거나 각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여 다양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용능력 향상을 도와야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가족, 친구, 종교 및 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체계 내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며,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대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 선후배간의 지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봉사 및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참여,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을 활성화시켜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적 연구를 통해 취업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행복감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나 대학기간 내에 취업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취업스트레스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지지, 행복감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 지 또는 사회적 지지 및 행복감의 변화에 따라 취업스트레스는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해 종단적으로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을 사회적 지지로 국한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외에도 취업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내적 및 외적요인을 다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취업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에 등록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한 자료의 결과이므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성을 지닌다. 향후에는 대학교의 특성별(국·공립, 사립, 전문대) 또는 지역(서울 경기권, 지방)에 따라 그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단위의 확률적 표집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경훈 (2010).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강유리 (2006).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77-100.

김경욱, 조윤희 (2011).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4), 197-218.

김금미 (2010). 대학생의 행복과 자아수용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63-883.

김민경 (2011). 대학생의 '행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0), 1-34.

김민정, 조긍호 (2009).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47-62.

김범준 (2011).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불행 관련 사건들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15-135.

김영상 (2003).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알리미 (2012). **2012년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2, 8월). http://www.accdemyinfo.go.kr. 에서 2012년 11월 30일 인출.

데일리중앙 (2012.08.16). 7월 실업률 3.1%… 청년실업률은 7.3% 고공행진.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html?idxno=42078에서 2012년 11월 9일 인출.

박미경, 이현림 (2008).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5), 239-259.

서경현 (2011). 대학생의 스트레스, 문제중심 대처 및 상/하향 비교 대처와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8), 217-236.

서하진, 김정옥 (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신현균, 장재윤 (2003). 대학 4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15-827.

심지은, 안하얀, 김지혜 (201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이해,** 32(1), 103-118.

안지영 (2007).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중학생과 그 부모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현숙 (2008). 대학생이 지각하는 취업전망, 영역별 삶의 목표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19-37.

윤명숙, 이효선 (2012). 대학생의 우울,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09-137.

이지연 (2005). **사회적 지원이 개인 안녕과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현주, 오윤자 (2011).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자녀관계에 따른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1), 157-173.

임운택 (2011). 유럽의 청년실업정책: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9(3), 63-95.

장재윤, 신현균, 김은정, 신희천, 하재룡, 장해미 (2004a). 대학 4학년생의 구직행태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45-165.

장재윤, 장은영, 김번성, 노연희, 이지영, 한지현 (2004b).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144.

최말옥 (2011). 남성과 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2), 19-40.

최현석, 이영선, 하정철 (2011).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2), 313-322.

하정희, 장유진 (2011).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행복감 및 사회적 지지제공의 관계: 사회적 지지수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27-449.

한국경제 (2012.11.05). 내년 '취업 빙하기'…"고용 20만대로 추락".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0539271.에서 2012년 11월 9일 인출.

한기혜, 박영신, 김의철 (2008). 대학생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학.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4-25.

허승연 (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 중급.** 서울: S&M 리서치그룹.

황윤경 (1996).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rgyle, M., & Martin, M. (1991). The psychological causes of happiness. In F. Strack, M. Argyle, & Schwarz (Ed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p. 77-100). Oxford: Pergamon Press.

Cameron, P. (1995). Mood as an indicant of happiness: Age, sex, social class and situational differ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31,* 117-124.

Coffman, D. L., & Gilligan, T. D. (2002). Social support, stress and self-efficacy: Effects on student's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4*(1), 53-66.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Cohen, S., & McKay, G. (1984). Social support,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In A. Baum, S. E. Taylor, & J. E. Sing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pp. 253-267). NJ: Hillsdale.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Dierner, E., & Suh, E.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 189-216.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Gallagher, E. N., & Vella-Brodrick, D. A. (2008).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intelligence as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4,* 1551-1561.

Henderson, A. S. (1984).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social support. *Social Psychiatry, 19,* 336-347.

Karademas, E. C. (2006).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optim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281-1290.

Lazarus, R. S. (1993).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55,* 234-247.

MacCallum, R. C., Zhang, S., Preacher, K. J., & Rucker, D. D. (2002). On the practice of dichotomization of quantitative variables. *Psychological Methods, 7,* 19-60.

Suh, E. M., Diener, E., & Fujita, F. (1996).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recent event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91-1102.

Thoits, P.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15-423.

Thompson, M. G., & Heller, K. (1990). Facets of support related to well-being: Qualitative social isolation and perceived family support in a sample of elderly woman. *Psychology and Aging, 5*, 535-544.

Wil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 294-306.

ABSTRACT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Cho, Hye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up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and happiness among college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734 students from the 1st to 4th grades in 4 Universities. The collected date were analyzed by means of AMO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male students, who had higher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higher subjective health status showed higher levels of happiness. Second,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had a negative impact upon happiness. Third, levels of social support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stress of preparing for employment and happiness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romotion of greater levels of social support to alleviate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college student's happiness,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social support, moderating effect

투고일 : 12월 6일, 심사일 : 12월 24일, 심사완료일 : 1월 21일

* Shingyeong University